

“상호금융 집단대출 규제, 연체율 되레 끌어올려”

신협·금고 과다규제 논란

“시공·시행사 신용도 엄격히 따져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서 안전”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비중 7.4% 신규대출 대규모로 늘릴 수 없어

최근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집단대출에 고강도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 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출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감추이〉

구분	'17년중 (1~4월)			'18년중 (1~4월)			'19년중 (1~4월)		
	1~4월	3월	4월	1~4월	3월	4월	1~4월	3월	4월
상호금융	7.6	1.9	1.9	0.6	△0.0	0.8	△4.0	△1.0	△0.0
신협	0.53	0.07	0.12	△1.11	△0.35	△0.20	△0.60	△0.12	△0.01
농협	3.36	0.89	0.7	1.5	0.34	0.9	0.05	0.02	0.4
수협	0.12	0.04	0.06	△0.23	△0.06	△0.08	0.06	△0.02	0.04
산림	0.17	0.04	0.05	0.2	0.05	0.07	0.19	0.04	0.06
새마을금고	3.46	0.87	0.93	0.23	△0.04	0.07	△3.71	△0.94	△0.52

(자료=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예대출 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신설해 500억원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해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집단대출은 시공사나 시행사의 신용도를 엄격히 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 아니며, 연체율도 오히려 일반대출보다 낮다”며 “토지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달리 담보가 확실하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안전한 대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집단대출은 명확한 분양권자가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며 “집단대출로 크게 부실화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가 없으나, 금융당국 입장으로

는 집단대출이 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집단대출에 대한 신규약정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규약정이 늘어나면 신규대출액이 증가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환도 일어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신규대출 유입과 기존 대출이 상환될 경우 안정적인 대출 영위가 가능한데 신규대출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집단대출 영입이 사실상 중단됐던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가 또 다른 규제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준이 너무 적어 신규 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집단대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추가 대출 영업 금지였다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영업 제한 완화 가능성이 됐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로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영입이 완화됐지만 당국이 제시한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인 7.4%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나간 집단대출 잔액도 있기 때문에 이 수준 이내에서는 신규대출을 대규모로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규제의 틀 안에서 경우에 따라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취업자 증가폭 다시 20만명 아래로

통계청 '4월 고용동향'

'공시영향' 실업률 19년만에 최대

두 달 연속 20만명 넘게 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영향으로 4월 기준 실업률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3040세대의 취업자 수 감소도 이어졌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 교육서비스업(5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4만9000명)에서는 증가폭이 컸다.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7만6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제조업(-5만2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지만, 화학제품업종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 폭은 전월(-10만8000명)의 절반으로 축소됐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 33만5000명, 50대 6만5000명, 20대 2만1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40대와 30대는 각각 18만7000명, 9만명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30~40대의 부진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하는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풀이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LG U+, 상상이 현실로... 사내벤처 키운다

4개팀 선발, 사내벤처 TF 15명 활동 위트레인, '운동닥터' 서비스 선보여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내에 사내벤처 선별을 알리는 공문이 나왔다. LG유플러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정부기관 최종 발표심사를 거치는 치열한 선별 과정이 이뤄졌다. 심사, 재평가 작업을 거쳐 최종 선발된 네 개의 팀들은 올해 1월부터 별도 사내벤처 TF로 발령났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TF 멤버들은 상상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 같이 선발된 자사 사내벤처팀 '위트레인'은 사내벤처 1호 서비스로 '운동닥터'를 선보인다. TF로 발령난 지 약 5개월 만이다. 사내벤처팀인 위트레인은 서비스 출시에 앞서 지난달 퍼스널 트레이너 이용 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운동닥터는 빅데이터로 수집된 전국 4800여개의 피트니스 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다. 고객이 트레이너 관련 정보를 찾고 트레이너가 회원을 유치하는데 소모하는 시간·비용을 최소화 시켜줘 효율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한다.

운동닥터로 고객들은 트레이너별 이용 요금과 일정,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트레이너들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고객을 유치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운동닥터는 안드로이드 및 IOS 앱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실행 시지도 및 위치를 기반으로 각 피트니스 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 상세 정보를 확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사내벤처 1호 서비스인 O2O 플랫폼 '운동닥터'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인할 수도 있다.

사내벤처 첫 서비스를 시작한 위트레인은 총 5명으로 김성환 리더를 포함, 위트레인은 2016년에 입사한 데이터베이스(DB), 영업, 마케팅, 개발 전문가로 이뤄졌다. 김성환 리더는 “중기부와 함께 한 사내벤처 육성사업은 기존 회사원 신분을 유지하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신선하고 파격적인 사업”이라고 평했다.

LG유플러스가 중기부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을 만들어가는 최근 트렌드에 맞춘 결과다. LG유플러스의 사내벤처 TF는 20~30대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년의 기간이 있지만 연장하거나 별도 법인을 분리하거나 혹은 사내 사업부로 전향할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부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 또한 사내 유망 기술이나 아이디어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사내 유망 정보통신기술(ICT)을 스핀-아웃(사업화)하는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내년까지 세계 기술을 스핀 아웃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킬 예정이다. 기술 상용화 가능성 검증은 ICT 기술센터 '테크 이노베이션 그룹'이 맡는다. 이외 거점 시장 검토나 스핀 아웃 단계는 각 해외 조직과 주체 조직을 결정해 진행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미디어 품질 개선에 나서는 '슈퍼노바' 기술도 스타게이트를 통해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KT도 비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KT 사업부와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조만간 360도 촬영 카메라 개발사인 링크플로우와 협업해 5G 기반의 360도 영상기반의 커뮤니케이션과 1인 미디어 방송이 가능한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lkni@

조현준 효성회장 '총수' 변경 가능성

>> 1면 '구광모·조원태...서 계속'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3세)과 롯데 신동빈 회장(2세)을 총수로 지정하며 재계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올해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면서 공정위가 3·4세로 총수를 변경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집단도 다수다.

현대차그룹은 승계작업을 받고 있는 정이선 그룹 총괄수석부회장(3세)이 대기하고 있다. 정이선 부회장은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7년 퇴진하고 아들인 조현준 부회장(3세)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총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조현준 회장은 조흥제 창업주의 손자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코오롱 그룹 역시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인 이용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올해에도 총수로 지정됐다. 이용렬 회장의 장남이자 4세인 이규호 전략기획담당 전무가 향후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올해도 대림그룹 총수들이 준용 명예회장으로 유지했지만, 내년께에는 3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총수는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바뀌게 돼 공정위 재벌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변경이 대거 이뤄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